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121>

JCCT 2020-2-16

## 해외 주요국 벤처육성 모델의 국내 적용 적합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ppropriate venture promotion model to korea among major foreign countries' venture policy

안종배\*

Jong Bae, Ah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성공적인 벤처육성 사례를 보이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 핀란드, 중국의 벤처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 중 국내 벤처 발전을 위해 유용한 모델, 적용이 용이한 모델, 적용에 적합한 모델, 그리고 국내 적용이 적합한 이유와 부적합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벤처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가 합의법'이라 불리는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50명의 벤처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연구결과 핀란드의 벤처육성 정책이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핀란드처럼 민,관,산,학,연이 유기적인 활동을 통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벤처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예전의 한국에서 실시한 정부 주도하에 민간이 따라오는 벤처 육성 정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벤처육성정책, 벤처육성 모델,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ost recent successful venture development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Israel, Germany, Finland,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ich foreign country's venture promotion policy is appropriate to korea, why foreign country's venture policy is appropriate to korea and why it is not appropriat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omestic venture promotion and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by 50 panel of venture experts using Delphi research technique called 'expert consensus'. As a result of the Delphi research, Finland's venture promotion policy has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usefulness, ease and suitability. Like Finland,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ecosystem through organic activities of private,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was analyzed as the first priority for domestic venture policy.

Analyzed.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venture policy followed by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government's strong promotion policy was no longer appropriate.

**Key Words:** Venture promotion policy, Suitability, Usefulness, Ease

\* 정회원, 한세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국제미래학회 회장  
접수일: 2019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0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0년 01월 25일

Received: December 31, 2019 / Revised: January 15, 2020  
Accepted: January 25, 2020

\*Corresponding Author: daniel@cleancontents.org

## I. 서론

### 1. 연구 배경

한국의 벤처정책은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재벌경제로부터 벤처경제로의 이행’을 산업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세우며 본격화 되었다. 과거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자금, 인력 등 경영자원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새로이 등장한 벤처기업에 배분되면서 벤처기업은 순식간에 한국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특히 초기 벤처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정보통신산업 관련 벤처기업을 본격 육성하였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이후 지속적인 정부정책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과도한 벤처지원 및 문지마 벤처 투자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반 벤처정서 및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벤처기업의 침체를 초래하였고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벤처 정책은 투입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달라지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한국 벤처 정책의 방향을 타진해 보기 위해 해외 국가 중 최근 벤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독일, 중국의 벤처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 적합한 모델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벤처 육성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 II. 관련 문헌 고찰

### 1. 선행 연구 고찰

국내 벤처 육성 정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 국가들의 벤처

육성에 대한 비교 연구는 2010년대에 들면서 본격화 되었다. 김정환(2006)<sup>1</sup>은 ‘주요국 벤처캐피탈 IT 투자 동향’ 연구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벤처캐피탈 투자 특성과 투자 단계 및 투자 업종을 분석하면서 각국의 벤처 육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국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독일은 하이테크 제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며 이스라엘은 통신/방송·반도체/소재·의료/헬스케어·소프트웨어 등 4대 분야 투자 육성에 집중하고 중국은 IT부문에 벤처 투자가 집중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오동윤·노민선(2013)<sup>2</sup>은 ‘해외 벤처정책 분석’ 연구에서 미국은 시장 원리에 의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영환경 조성 및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특성이라고 분석하였다.

성지은·박인용(2013)<sup>3</sup>은 ‘핀란드 R&D 성과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서 핀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을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국가혁신체제(NIS)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핵심역량의 집중적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배영임의 2인(2012)<sup>4</sup>은 ‘벤처생태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이스라엘 벤처 육성 정책으로 인큐베이터(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과 엑셀러레이터,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게 하는 모험자본인 벤처캐피탈, 기술 아이디어의 발굴을 담당하는 정부의 R&D과제 평가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홍지성(2012)<sup>5</sup>은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시사점’ 연구에서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기술의 상업화·실용화로의 확산연계 정책이 특성이라고 분석하였다.

조영삼(2015)<sup>6</sup>은 ‘최근 중국의 창업벤처 정책 동향과 시사점’ 연구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창업정책 지원이 특성인데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표방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임준, 염수현, 조유리(2013)<sup>7</sup>는 ‘벤처창업 금융 현황 및 정책 방향’ 연구에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의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벤처캐피탈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임길환·정유훈(2016)<sup>8</sup>은 ‘주요국의 벤처 창업 지원 정책 추진체계 비교’ 연구에서 이스라엘, 미국, 핀란드, 스웨덴의 벤처 육성 지원 프로그램과 벤처 정책 주관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벤처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환외2인(2017)<sup>9</sup>은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과 시사점’ 연구에서 미국, 독일, 핀란드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벤처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우진(2017)<sup>10</sup>은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과 성과 분석’ 연구에서 독일, 핀란드, 중국, 이스라엘, 호주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고 국내 벤처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세희(2018)<sup>11</sup>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제도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EU, 일본의 벤처 육성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계영외 6인(2015)<sup>12</sup>은 ‘주요국의 과학기술벤처 창업환경과 정책지원체계 비교 연구’에서 해외 국가의 벤처창업 교육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벤처창업 교육 지원 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해외 주요 국가 벤처 육성 정책 분석

선행 연구들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 독일, 핀란드,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벤처 육성 정책의 특성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의 벤처 육성 정책 특성

전 세계 벤처의 본산지인 미국의 벤처 육성 정책은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와 공정성(fairness)을 그 사상적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성이다. 즉 창업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발전 단계별 자금지원, 이를 뒷받침하는 세계 및 투자자금 회수를 촉진하는 금융환경, 원활한 인력공급 등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Small Business Jobs Act’ 제정으로 창업자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게 하였으며 2011년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통해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2년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일명 JOBS법)을 제정하여 신생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Croud Funding)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 정책의 핵심은 정부 차원의 직접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용보증을 확대하며 창업을 쉽게 하고 초기에 열세인 창업기업에게 세제 혜택 및 정보 제공 그리고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장 메카니즘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ICT Insight, 2013)<sup>13</sup>

미국의 벤처·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부(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담당하고 있다. SBA는 장관, 차관을 중심으로 하여 20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자금, 혁신클러스터, 정부조달, 컨설팅, 지원시책 발굴,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SBA는 벤처·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지원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및 중소기업 기술 이전제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STTR)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소유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의 이전 및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다.(이세희, 2018)

미국은 1958년에 벤처기업의 장기자본 조달 프로그램으로 SBIC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주로 민간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를 회피하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운영이나 성장, 확장, 현대화를 위한 건전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공개주식(private equity) 투자자본과 장기 펀드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임준, 염수현, 조유리, 2013)

미국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융·복합 분야의 학습이나 창의성 함양에 대한 기본을 철저히 배우고, 창업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창업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마케팅, 인사조직 등으로 구성된 단기교육과정은 창업을 결정할 사람이나 창업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공한다. 미 중소기업부(SBA)는 미국 벤처·소기업 카운슬러(SCORE)와 10대들의 비즈니스 연계(Teen Business Link)를 제공하며, 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와 파트너십을 갖고

청년소유비즈니스지원(Mind Youth Own Business)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또한 주정부에서도 창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최계영외 6인, 2015)

### 2) 이스라엘의 벤처 육성 정책 특성

이스라엘은 유망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육성 정책으로 인터넷·통신·소프트웨어·생명공학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심 국가로 부상하였고 세계 각국의 유명 대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벤처 육성 정책은 벤처기업이 창업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면서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나 벤처캐피탈이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스라엘 벤처 육성 정책의 중심은 ‘요즈마 펀드’라고 불리는 벤처캐피탈과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TIP)이다.

‘요즈마 펀드’는 1993년 정부에서 벤처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로 설립된 이후 1998년 민간화되었고 벤처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이스라엘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요즈마 펀드는 기술의 깊이가 있거나, 다양한 방향으로의 제품 발전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둔 회사를 지원 심사기준에서 우대하고 있다.

1991년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 시작된 벤처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2002년 민영화되었고 전국에 26개로 인큐베이터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연간 80개 이상의 신규 벤처 창업 기업이 육성되고 있으며 창업 단계에서부터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영, 마케팅,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지원이 수반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산업무역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 산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에서 벤처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즈마 펀드’와 ‘기술인큐베이트 프로그램’ 운영과 벤처기업 선정과 육성 지원에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벤처 창업기업들에게 기술·마케팅

활동의 지원,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무자원의 획득 지원, 연구개발팀의 형성과 조직화 지원, 카운셀링, 안내, 지도사업 실시, 비서 및 관리적 서비스, 운영, 구매, 회계, 법적 어드바이스, 자본총당과 마케팅 사전 준비의 지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나스닥(NASDAQ) 상장 회사를 많이 배출하였고 이는 이스라엘의 벤처 육성 정책 및 인재 양성과 유치 정책에 의해 가능하였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교육과 도전적인 정신을 강화하면서 연구 과제를 벤처 창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벤처 창업 교육사례는 젤 기업가정신 프로그램(Zell Entrepreneurship Program)으로 학생들이 아이디어부터 벤처 창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플랫폼, 특화된 교육, 실습 프로그램, 워커숍, 성공한 벤처창업가의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3) 독일의 벤처 육성 정책 특성

중소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4차산업혁명의 진원지로 독일의 벤처·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자생적 경쟁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 국가로 불리울 만큼 오랜 기간 건강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현재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일컫는 베를린의 성장세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유도하고 지배적인 시장지위 남용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기업에 신용·기술보증 형태의 출자금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거래세 면세혜택을 주는 등 벤처기업의 재무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조유리 외, 2016)<sup>14</sup>.

독일은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기업들의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과 벤처캐피탈 시장 육성 및 벤처 자금의 원활한 이동성을 위한 육성 지원책을 강화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은 주로 경제기술부 (BMW)와 교육 연구부(BMBF)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기술부(BMWi)의 ZIM(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사업과 교육과학부(BMBF)의 KMU-innovativ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로 시장지향형 선도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에 기업가정신과 창업 문화를 폭넓게 소개하고, 창업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창업과 벤처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창업교육을 정규학교, 직업학교, 대학교 등의 교과과목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에서 나아가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반 창업 학과 과정을 확대 개설하고 있고, 막스플랑크(Max-Planck) 연구소,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 등의 대형 연구기관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 4) 핀란드의 벤처 육성 정책 특성

핀란드는 정부, 교육기관, 학생 그리고 기업 간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벤처 창업환경, 이른바 벤처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 구축과 강화를 통한 벤처 육성 정책이 주요한 특징이다.

핀란드는 기업가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핀란드 교육 기관은 ICT와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한 고급지식을 배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조유리 외, 2016).

핀란드는 학생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을 이끌어 주어 기존 기업과 창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토록 지원한다.

창업 희망자는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노하우와 자금 지원을 받는 한편,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시장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핀란드는 현재 유럽 최고의 창업환경이 조성되어 핀란드의 창업 환경지표는 EU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업가정신과 같은 국민 의식뿐만 아니라 Second Chance제도, 자금 지원 등 창업과 관련

된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도 여타 유럽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최계영외 6인, 2015)

핀란드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Tekes(기술혁신지원청)와 FINNERA(수출신용보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Tekes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R&D 자금을 지원한다. Tekes는 핀란드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으로 기업,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 대한 R&D 자금 지원을 맡는 등 R&D 전 주기 차원에서 활동을 지원한다. Tekes는 지원 대상의 관점에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젊은 혁신기업', '젊은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별, 그들의 혁신 및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창업기업은 초기 성장 지원 및 사업 모델을 심화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중소기업은 혁신 역량 증진 및 수출 등을 통한 시장 확대, 글로벌화 등에 집중하여 지원한다(김영환 외, 2017).

핀란드는 창업 초기에는 성장 지원 및 사업모델의 심화를 돕는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한다. 이후 벤처·중소기업은 혁신 역량 증진 및 글로벌화 지원에 집중한다. 핀란드의 벤처·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업 차원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R&D 지원에 있어 벤처·중소기업을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받는 수요자로 보고 밀착형·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란드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이 창의성 양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일정기간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포함한 직업훈련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Start-up Sauna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를 비롯한 자발적인 활동을 추구하며, 학교는 공간, 코칭,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는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이 밀집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여 산·학·관·연이 함께 협업하여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 5) 중국의 벤처 육성 정책 특성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벤처 창업 정책 시행으로 창업 붐을 일으켰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ICT 산

업 지원 정책,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ICT 관련 주요 기술 정책 지원, M&A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창업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올라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창업 열풍이라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과감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국 인들로 하여금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에서부터의 창업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우진, 2017)

중국정부는 중국 경제의 활기 진작과 혁신 파급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벤처 창업의 대중화와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내건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革新)”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 아래 기존의 창업비용과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축소하여 창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정부는 벤처 육성 정책 기본원칙으로 시장 주도, 정책의 통합 및 체계화, 창업·혁신 관련 자원 및 정보의 개방·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대중창업 공간 등 새로운 창업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중점임무를 배치하고 있는데, 대중창업 공간의 가속적 확대, 창업 진입장벽 완화, 과학·기술인, 대학생 창업 장려, 재정지원 강화, 창업자금 조달시스템 완비, 혁신형 창업 환경 및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삼, 2015)

중국 정부는 혁신클러스터 설립 및 첨단기술 개발, 기술의 상업화 등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1988년 중관촌(中關村)을 시작으로 전국에 27개의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창업 기업들에게 세금감면, 설비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뿐만 아니라 창업관련 투자, 인큐베이터, 컨설팅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곽배성, 2015)<sup>15</sup>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IPO시장을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용이하게 하였다. 중국에 성공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높은 투자회수율로 인하여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벤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공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들이 엔젤투자자 역할을 하며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2013년부터 국무원은 졸업 후 바로 창업하면 그 해 세금 8천 위안을 감면해 주

고, 12개월간 사무실 임대료 감면, 자문서비스, 대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주도 자생 커뮤니티인 중창공간(衆創空間)이 발달하면서 정부 주도의 혁신 클러스터에 민간 주도의 창업공간이 더해져 중국 특유의 자생적 창업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중창공간은 기존의 혁신 클러스터, 인큐베이터에 창취쿵젠, 창업카페 등 민간시장에서의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온·오프라인 공간, 창업투자시스템, 창업지원제도 등을 통합한 창업지원 플랫폼을 의미한다. 또한, 베이징 중관촌의 츠어쿠(車庫) 카페와 같이 예비창업가와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상생적 커뮤니티 공간이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우진, 2017)

중국은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40여개 대학 인프라를 통해 혁신기업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을 연계한 창업 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III. 연구 과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과제

관련문헌의 고찰을 통해 분석한 해외 주요 국가의 벤처 육성 정책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다음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비교  
table1. foreign country's venture promotion policy

	벤처 정책 방향	벤처 육성 프로그램	벤처 주관 부처	벤처 창업 교육
미국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벤처,창업기업 신용 보증 *벤처,중소기업 클라우드 펀딩 *벤처 인프라 지원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청이 총괄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실시
이스라엘	*유망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창업	*민.관 벤처캐피탈 '요즈마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산업무역 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 실이 정책	*창의성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도록 경쟁력을 갖추게 지원한다.	*기술인큐베이터(TIP)프로그램 *정부 개입 없이 전문가 중심 운영	총괄 *운영은 전문가 중심으로 총괄	실시
독일	*벤처·중소 기업의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창업을 활성화 하는 정책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 및 창업 기업에게 신용보증 및 세계혜택 *벤처·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교육연구부에서 기술혁신 및 선도기술 연구 지원 총괄	*대학, 직업 학교 창업교육 *연구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개발
핀란드	*정부, 교육 기관, 학생 그리고 기업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벤처창업환경, 벤처 생태계 구축 및 강화	*창업초기 성장지원 및 사업모델 심화 돕는 액셀레이팅 지원 *‘젊은혁신기업’ ‘젊은성장기업’ 선별하여 혁신과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고용경제 부 산하 Tekes (기술혁신 지원청)에서 총괄	*중학교부터 대학, 창의성 및 창업 체감 교육 *창업 동아리 창업 실질적 지원
중국	*정부 주도의 벤처창업부조성과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 유도 *‘대중창업 만중창신’으로 벤처창업의 대중화 구현	*창업을 용이하게 창업비용 및 행정 절차 혁신 *창업공간, 창업자금조달, 창업컨설팅 등 창업 인프라 제공 *다양한 IPO 시장과 벤처캐피탈 및 성공한 벤처 회사의 재투자 활성화는 벤처생태계 선순환 조성	*중국 국무원 및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가 개별 총괄	*베이징대, 칭화대 등 대학에 산·학연계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제공

와 실제 구현 용이성 그리고 이를 감안한 한국에의 적용 적합성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벤처 육성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이 상정하였다.

- 연구과제1: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은 한국에 적용시 국내 벤처 발전에 얼마나 유용한가?  
 연구과제2: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은 한국에 실제 구현이 얼마나 용이한가?  
 연구과제3: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은 한국에 적용이 얼마나 적합한가?  
 연구과제4: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들은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2.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해외 주요국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의 한국에의 적용시 국내 벤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파악한 유용성과 한국에의 실제 구현 가능 정도를 파악한 용이성,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한국에의 적용 적합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위해 벤처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기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구주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자유스럽게 유도하고 합리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국제미래학회, 2014)<sup>16</sup>

본 연구의 성격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델파이(Delphi) 조사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와 풍부한 의견들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하였다.

델파이 1차조사로 선정된 전문가 패널들에게 표1의 해외국가별 벤처육성정책에 동의 여부와 의견을 개방형 조사를 통해 얻었다. 전문가 패널은 모두가 표1의 해외 국가별 벤처육성정책 특성에 동의하였다. 이에 전문가 패널들에게 이를 제공하면서 2차 설문 조사로 해외 주요국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의 한국 벤처 발전에의 유용성과 구현 용이성 및 적용 적합성에 대한 설문지에 답신을 받아 응답을 분석하여 항목별 평균치를 포함한 통계틀로 정리하였다. 이를 3차 설문에서 함께 제시하

이러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들을 한국에의 적용시 얼마나 유용한지

여 전문가 패널이 의견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설문 조사 답신 응답 결과와 합의 정도를 평균(MEAN)과 표준편차(SD) 및 변이계수(CV: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파악하였다. 변이계수(CV)가 0.5이하이면 패널 전문가 합의의 안정성이 높다고 분석된다.(국제미래학회, 2014)

2) 연구 패널 특성

텔파이 조사 대상의 패널인 벤처 관련 전문가는 벤처 전공 교수 13명과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10명, 벤처기업 임원 20명, 벤처 관련 정부기관 임직원 7명 등으로 총 50명을 선정하였다.

표 2. 연구 전문가 패널 구성

table2: Professional Panel for Research

구분		빈도(명)	백분율(%)
소속	대학	13	26.0
	연구기관	10	20.0
	벤처기업	20	40.0
	정부관련기관	7	14.0
분야	IT 및 공학	12	24.0
	벤처 컨설팅	8	16.0
	벤처 경영	18	36.0
	벤처 정책	7	14.0
	기타	5	10.0
계		50	100.0

IV. 연구 결과

선정된 벤처 관련 전문가 패널 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항목별로 한국에의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체크하게 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별로 벤처 육성 정책의 한국에의 적용 적합 이유와 부적합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게 하였다. 5점척도 설문은 1차 응답을 분석하여 항목별 평균치를 포함한 통계적으로 정리된 설문을 다시 제시하고 2차 설문에서 전문가 패널이 의견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텔파이 조사 과정을 거쳐 변이계수 0.5 이하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분석된 전문가들 관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 한국에 적용시 국내 벤처 발전에의 유용성 조사 결과

연구과제1인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은 한국에 적용시 국내 벤처 발전에 얼마나 유용한가? 에 대한 텔파이 조사 결과 도표3과 같은 결과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핀란드가 벤처 정책 방향 4.75, 벤처육성프로그램 4.70, 벤처주무부처 4.55, 벤처창업교육 4.72와 전체 평균 4.68로 한국 적용시 국내 벤처 발전에 가장 유용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표 3. 해외 주요국 벤처 정책별 국내 벤처 발전에의 유용성 table3: usefulness of foreign venture policy to Korea

국가	세부정책	국내 벤처 발전에의 유용성		
		MEAN	SD	CV
미국	벤처 정책 방향	4.08	0.96	0.22
	벤처 육성 프로그램	4.06	1.02	0.25
	벤처 주무 부처	4.15	0.89	0.18
	벤처 창업 교육	4.30	0.92	0.20
	합계	4.15	0.95	
이스라엘	벤처 정책 방향	4.38	0.90	0.20
	벤처 육성 프로그램	4.68	0.62	0.12
	벤처 주무 부처	4.48	0.89	0.17
	벤처 창업 교육	4.70	0.67	0.14
	합계	4.56	0.77	
독일	벤처 정책 방향	4.10	0.98	0.23
	벤처 육성 프로그램	4.30	0.86	0.26
	벤처 주무 부처	4.13	0.90	0.20
	벤처 창업 교육	4.38	0.82	0.18
	합계	4.23	0.89	
핀란드	벤처 정책 방향	4.75	0.60	0.10
	벤처 육성 프로그램	4.70	0.63	0.15
	벤처 주무 부처	4.55	0.58	0.12
	벤처 창업 교육	4.72	0.61	0.13
	합계	4.68	0.61	
중국	벤처 정책 방향	3.98	1.07	0.24
	벤처 육성 프로그램	4.10	0.80	0.17
	벤처 주무 부처	3.89	0.98	0.23
	벤처 창업 교육	3.80	0.70	0.26
	합계	3.94	0.89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벤처정책방향 4.38, 벤처육성 프로그램 4.68, 벤처주무부처 4.48, 벤처 창업교육 4.70 이고 전체 평균 4.56이다. 세 번째는 독일로 벤처정책

방향 4.10, 벤처육성프로그램 4.30, 벤처주무부처 4.13, 벤처 창업교육 4.38이고 전체 평균 4.23이다. 네 번째는 미국으로 벤처정책방향 4.08, 벤처육성프로그램 4.06, 벤처주무부처 4.15, 벤처 창업교육 4.30이고 전체 평균 4.15이다. 다섯 번째는 중국으로 벤처정책방향 3.98, 벤처육성프로그램 4.10, 벤처주무부처 3.89, 벤처 창업교육 3.80이고 전체 평균 3.94이다.

## 2.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 한국에의 실제 구현 용이성 조사 결과

연구과제2인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은 한국에 실제 구현이 얼마나 용이한가? 에 대한 텔파이 조사 결과 도표4와 같은 결과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유용성과 같이 핀란드가 벤처 정책 방향 4.70, 벤처육성프로그램 4.66, 벤처주무부처 4.63, 벤처창업교육 4.50와 전체 평균 4.62로 한국에 실제 구현도 가장 용이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표 4. 해외 주요국 벤처 정책별 국내 실제 구현 용이성  
 Table 4 easeness of foreign venture policy to korea

국가	세부정책	국내에 실제 구현 용이성		
		MEAN	SD	CV
미국	벤처 정책 방향	4.38	0.86	0.21
	벤처 육성 프로그램	4.26	0.87	0.25
	벤처 주무 부처	4.70	0.67	0.14
	벤처 창업 교육	4.38	0.90	0.29
	합계	4.43	0.83	
이스라엘	벤처 정책 방향	4.10	0.98	0.27
	벤처 육성 프로그램	4.06	1.06	0.28
	벤처 주무 부처	4.01	0.93	0.23
	벤처 창업 교육	4.05	0.69	0.24
	합계	4.06	0.92	
독일	벤처 정책 방향	4.66	0.62	0.12
	벤처 육성 프로그램	4.60	0.77	0.18
	벤처 주무 부처	4.18	0.96	0.25
	벤처 창업 교육	4.65	0.60	0.19
핀란드	합계	4.52	0.74	
	벤처 정책 방향	4.70	0.66	0.22
	벤처 육성 프로그램	4.66	0.76	0.23
	벤처 주무 부처	4.63	0.63	0.15
	벤처 창업 교육	4.50	0.69	0.21
중국	합계	4.62	0.69	
	벤처 정책 방향	4.30	0.90	0.18

국	벤처 육성 프로그램	4.38	0.94	0.29
	벤처 주무 부처	4.06	0.98	0.27
	벤처 창업 교육	4.18	0.96	0.25
	합계	4.23	0.95	

두 번째는 독일로 벤처정책방향 4.66, 벤처육성프로그램 4.60, 벤처주무부처 4.18, 벤처 창업교육 4.65이고 전체 평균 4.52이다. 세 번째는 미국으로 벤처정책방향 4.38, 벤처육성프로그램 4.26, 벤처주무부처 4.70, 벤처 창업교육 4.38이고 전체 평균 4.43이다. 네 번째는 중국으로 벤처정책방향 4.30, 벤처육성프로그램 4.38, 벤처주무부처 4.06, 벤처 창업교육 4.18이고 전체 평균 4.23이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로 벤처정책방향 4.10, 벤처육성프로그램 4.06, 벤처주무부처 4.01, 벤처 창업교육 4.05이고 전체 평균 4.06이다. 이스라엘은 발전 유용성은 두 번째로 평가 되었으나 구현 용이성은 다섯 번째로 평가되었다. 발전 유용성은 다섯 번째였던 중국이 구현 용이성은 네 번째로 평가되었다.

## 3.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 한국에의 적용 적합성 조사 결과

연구과제3인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 모델은 한국에 적용이 얼마나 적합한가? 에 대한 텔파이 조사 결과 도표5와 같은 결과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유용성과 용이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핀란드가 벤처 정책 방향 4.81, 벤처육성프로그램 4.75, 벤처주무부처4.65, 벤처창업교육 4.66와 전체 평균 4.72로 한국에 실제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표 5. 해외 주요국 벤처 정책별 국내 적용 적합성  
 Table5. suitability of foreign venture policy to korea

국가	세부정책	한국에 적용 적합성		
		MEAN	SD	CV
미국	벤처 정책 방향	4.15	0.67	0.22
	벤처 육성 프로그램	4.20	0.67	0.27
	벤처 주무 부처	4.60	0.70	0.18
	벤처 창업 교육	4.35	0.88	0.20
	합계	4.33	0.77	
이스라엘	벤처 정책 방향	4.50	0.80	0.29
	벤처 육성 프로그램	4.41	0.92	0.21

라 엘	벤처 주무 부처	4.20	0.96	0.25
	벤처 창업 교육	4.50	0.70	0.22
	합계	4.40	0.85	
독 일	벤처 정책 방향	4.60	0.70	0.21
	벤처 육성 프로그램	4.62	0.92	0.24
	벤처 주무 부처	4.20	0.96	0.22
핀 란 드	벤처 창업 교육	4.64	0.73	0.18
	합계	4.52	0.77	
	벤처 정책 방향	4.81	0.66	0.25
중 국	벤처 육성 프로그램	4.75	0.76	0.20
	벤처 주무 부처	4.65	0.63	0.26
	벤처 창업 교육	4.66	0.69	0.27
중 국	합계	4.72	0.69	
	벤처 정책 방향	4.15	0.89	0.20
	벤처 육성 프로그램	4.18	0.92	0.27
	벤처 주무 부처	3.80	0.99	0.24
	벤처 창업 교육	4.20	0.90	0.19
합계	4.07	0.93		

두 번째는 독일로 벤처정책방향 4.60, 벤처육성프로그램 4.62, 벤처주무부처 4.20, 벤처 창업교육 4.64이고 전체 평균 4.52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로 벤처정책방향 4.50, 벤처육성프로그램 4.41, 벤처주무부처 4.20, 벤처 창업교육 4.50이고 전체 평균 4.40이다. 네 번째는 미국으로 벤처정책방향 4.15, 벤처육성프로그램 4.20, 벤처 주무부처 4.60, 벤처 창업교육 4.35이고 전체 평균 4.33이다. 다섯 번째는 중국으로 벤처정책방향 4.10, 벤처육성프로그램 4.18, 벤처주무부처 3.80, 벤처 창업교육 4.20이고 전체 평균 4.07이다.

#### 4.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들의 한국에의 적용이 적합한 이유와 적합하지 않은 이유

연구과제4인 해외 주요국의 벤처 육성 정책들은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나왔다.

##### 1) 핀란드

###### ① 적합한 이유

핀란드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벤처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핀란드의 벤처육성 정책방향인 산·학·관·연간 유기적인 활동을 통한 벤처 창업환경, 즉 벤처

창업생태계(Start-up Ecosystem) 구축이 한국에도 꼭 필요한 모델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산·학·관·연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벤처 기업 육성과 클러스터 접근방식의 협력으로 창업과 신성장 산업경제를 성숙시킬 수 있다.

핀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과 성장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각각 다른 벤처 육성 정책을 운영하여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벤처 창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이들 중 성장하는 기업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이 국내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핀란드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에 창의성,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학생들이 창업동아리를 비롯한 자발적인 활동을 추구하며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국내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와 더불어 핀란드는 관련 업종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한정된 자원의 집중지원이 이루어져 벤처강국 모형이자 전문기술 거점이 강화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교류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② 적합하지 않은 이유

핀란드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핀란드의 벤처육성 모델은 창의적 양질의 인재가 양성되고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현하기 어려우며, 지역별 클러스터 배분은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독일

###### ① 적합한 이유

독일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벤처육성 모델은 건장한 벤처·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일컫어질 만큼 벤처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실수요자인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기에 한국에 적용할 필요성과 적합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 및 혁신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이 가능하며, 단계별로 벤처·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 더불어 대학과 직업학교에서의 창업과 연구소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두는 시스템이므로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많았다.

#### ② 적합하지 않은 이유

독일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벤처육성 모델은 기술혁신 기업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수 중심의 자생력이 취약한 벤처·중소기업에게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권 중심의 벤처 기업 비용 지원은 현실적으로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독일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었다.

#### 3) 이스라엘

##### ① 적합한 이유

이스라엘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의 벤처육성 모델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요즈마 펀드와 같은 공공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혁신 기업을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지원 육성한다는 점이 한국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스라엘은 좁은 토지와 천연자원의 부족 등의 국가 상황이 한국과 유사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여 많은 성공 사례를 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② 적합하지 않은 이유

이스라엘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의 벤처육성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요즈

마 펀드 등은 이스라엘 환경에는 가능하지만 한국에 적용 가능성이 약하고, 한국은 아직 기업가 정신이 약하고 해외 거주 유대인들의 해외 펀드 등과 같은 해외 지원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이 많았다.

#### 4) 미국

##### ① 적합한 이유

미국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벤처육성 모델은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세계 지원 및 투자자금 회수를 촉진하는 금융환경, 원활한 인력공급 등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 문화의 발달과 기술 중심의 신용보증과 지원시스템이 우수하여 유망한 벤처는 금융이 뒷받침 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M&A가 활성화되어 있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 ② 적합하지 않은 이유

미국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벤처육성 모델의 핵심인 공정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성장은 한국 상황에서는 벤처산업의 육성 및 자생이 어려우며, 세계와 시장에 의한 금융 시스템에 의한 지원 정책은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 5) 중국

##### ① 적합한 이유

중국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벤처육성 모델은 창업의 대중화와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내건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革新)”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부 주도 정책이다. 이를 위해 창업비용과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시장 주도, 창업·혁신 관련 자원 및 정보의 개방·공유, 대중창업 공간의 가속적 확대, 창업 진입장벽 완화, 과학·기술인, 대학생 창업 장려, 재정 지원 강화, 창업자금 조달시스템 구축, 혁신형 창업

환경 및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② 적합하지 않은 이유

중국의 벤처육성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벤처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벤처육성 모델의 핵심인 강력한 정부 주도에 의한 창업 붐과 벤처 육성은 더 이상 한국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최근 10여년 동안 수차례 정부 주도의 창업과 벤처 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벤처 육성 정책은 한국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V. 결론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 벤처육성 모델의 국내 적용 적합성에 대한 연구결과 발전적인 국내 벤처 육성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벤처 전문가 패널의 조사 분석에서 핀란드가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벤처 생태계의 구축과 활력을 통해 벤처 창업과 벤처 성장 그리고 재투자자의 벤처 선순환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지속가능한 벤처육성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벤처육성 정책은 더 이상 한국엔 효과를 거두기 힘들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벤처육성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때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벤처,창업 붐과 같은 중국의 벤처육성 정책이 용이성은 높으나 유용성과 적합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벤처 창업은 국내의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와 이스라엘은 벤처 창업시부터 글로벌 시장

을 겨냥하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기술혁신과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한 많은 벤처창업 기업의 성공사례가 이 나라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에서는 내수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벤처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벤처창업 붐과 벤처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창의성,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 제공되는 벤처정책이 필요하다. 해외의 주요국들은 초등학교부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통한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마인드 고취와 창업 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교육과정과 학생 창업지원체도의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다섯째, 벤처 창업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성공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sup>1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벤처육성 정책의 국내 적용 적합성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벤처 정책 시사점을 국내에 적용시켜 국내 벤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Jeong-Hwan Kim, "Venture Capital IT Investm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ITinsight, IITA, 2006
- [2] Dong-Yoon Oh, Min-Sun Noh, "Overseas Venture Policy Analysis ", Repo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ssociation, 2013
- [3] Ji-Eun Sung, In-Yong Park,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Finnish R & D Performance Management.", Issue & Policy,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3
- [4] Yong-Im Bae, Hwan-Yong Pyo, Yong-Tae Kim, "A Policy Study to Promote Internal Venture Ecosystem(Israel)", Small and Medium Business Institute, 2012
- [5] Ji-Sung Hong, "German SME Technology Support Policy and Implications", Industrial economy of KIET, Vo; 48, 2012
- [6] Yeong-Sam Cho, "Recent Trends of Chinese Startup Venture Policy and Implications",

- Industrial economy of KIET, 2015
- [7] Joon Im, Soo-Hyun Yeom, Yoo-Ri Cho, "Venture Startup Finance Status and Policy Direction", Premium Report of KISDI, 2013
- [8] Kil-Hwan Im, Yoo-Hoon Jung, "Comparison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Venture Startup Support Policy of Major Countries", Report of National Assembly Preliminary Policy Division, 2016
- [9] Yong-Hwan Kim, Jung-Woo Lee, Phil-Sung Jang, "SME R & D Support Policy and Implication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Report of STEPI, 2017
- [10] Woo-Jin Lee, "Status and Performance Analysis of Venture Startup Support Policy", Report of KISDI, 2017
- [11] Se-Hee Lee,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Small and Venture Business Development Support System(USA, EU)", Master's Thesis of Dankuk University, 2018
- [12] Kye-young Choi, Min-Sik Kim, Min-sun Song, Won-Joon Jung, Yoo-Ri Kang, Dae-Hwan Kim, Doo-Jin Lee, "Comparison of Science and Technology Venture Startup Environment and Policy Support System in Major Countries", Report of KISDI, 2015
- [13] ICT Insigh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SME Venture Business Policies in Major Countries", Report of NIPA, 2013
- [14] Yoo-Ri Cho, Chung-Hyeon Nam, Eun-Min Lee, Dong-Heon Oh, Do-Hoon Kim, "Panel Data Construction and Policy Direction Study for Change Analysis of ICT Venture Ecosystem" Report of KISDI, 2016
- [15] Bae-Sung Kwak, "China's New Growth Engine Start up", Report of POSRI, 2015
- [16] Global Futures Studies Society, Strategic Futures Foresight Methodology Bible, DooNam, 2014
- [17] Jeong-Su Kim, Moon-Ho Lee, "5G Mobile Communications: Fourth Industrial Aort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1. 1,2018.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337>
- [18] Joon-ho Do, "Media Education Methodology in Smart Media Era",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18, No 5, 2018  
<https://doi.org/10.7236/IIBC.2018.18.5.245>
- [19] Hie-Houn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roblems of ICT-related laws system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7 No.2,2019), DOI 10.17703/IJACT.2019.7.2.7